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설명자료

I. 보험가입 현황 및 수요조사

1. 가구당 가입 현황

■ 2016년 조사에서는 보험산업 전체 가구당 보험 가입률이 96.3%¹⁾로 대부분 가구에서 1개 이상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은 81.8%이고, 가구 가입건수는 3.4건으로 조사됨.

○ 2016년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은 88.9%이며, 가입건수는 가구당 3.5건임.

<표 1>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가구당 가입률(%)		96.4	98.0	96.1	96.1	97.5	99.7	96.3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	88.0	87.3	86.3	83.0	85.8	87.2	81.8
	가구 가입건수(건)	4.1	3.8	3.8	3.6	4.0	3.5	3.4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	85.9	91.4	87.2	86.8	87.7	91.8	88.9
	가구 가입건수(건)	2.5	3.0	2.9	3.1	3.3	3.4	3.5

■ 거주 지역, 세대주 연령, 가구 소득에 따른 가구 보험가입률의 경우 대부분 전년대비 소폭 하락함.

○ 지역별로는 군지역의 가구 가입률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세대주 연령 및 가구 소득별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60대 이상 고연령 계층과 저소득 가구 계층에서 전년대비 가구 가입률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음.

<표 2> 가구당 가입률: 특성별

(단위: %)

특성별		보험종목별			보험산업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전체 가입률		97.5	99.7	96.3	85.8	87.2	81.8	87.7	91.8	88.9			
거주 지역별	대도시	97.8	99.6	99.1	87.1	85.5	84.5	86.9	90.6	92.0			
	중·소도시	97.1	99.6	94.8	84.6	87.3	81.9	88.8	92.4	87.0			
	군지역	97.9	100.0	88.7	85.6	95.8	66.0	85.6	94.8	82.5			
세대주	30대	96.5	100.0	99.5	83.1	87.7	85.6	90.5	95.2	94.6			
	40대	98.9	99.6	98.8	89.5	90.5	88.8	95.1	96.7	95.3			

1) 한 가구에서 한 명이라도 보험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가입률을 말하며,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수치임.

연령	50대	98.7	100.0	98.3	88.5	88.7	86.3	91.5	94.7	91.7
	60대 이상	95.4	99.0	87.6	81.2	84.1	66.1	73.9	82.9	73.1
가구 소득	저소득	90.2	98.3	86.5	72.9	75.3	60.5	63.6	73.2	66.5
	중소득	98.7	100.0	99.0	85.8	86.2	85.4	90.9	94.3	94.2
	고소득	99.6	100.0	99.0	91.9	93.0	92.9	95.2	97.8	97.4

2. 개인별 보험가입 현황

■ 2016년 전체 개인 보험가입률은 93.8%로, 10명 중 9명 이상이 보험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의 개인 보험가입률은 73.4%로 나타났으며, 손해보험의 개인 보험가입률은 76.2%를 기록함.

<표 3> 개인 보험가입률

(단위: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생명보험	79.3	77.3	79.3	78.9	73.4
손해보험	67.9	74.6	74.3	79.7	76.2
전체	92.9	94.0	93.8	96.7	93.8

■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개인 보험가입률은 각각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 여성(76.9%)이 남성(69.9%)에 비하여 개인 가입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남성(95.0%)이 여성(66.5%)보다 개인 가입률이 높았음.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20대와 60대 이상에서 가입 보험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개인 보험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 개인별 보험 가입률: 특성별

(단위: %)

구분		보험산업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전체 가입률		93.8	96.7	93.8	79.3	78.9	73.4	74.3	79.7	76.2
성별	남성	93.9	97.0	95.5	75.9	74.2	69.9	82.7	89.0	86.0
	여성	93.6	96.4	92.2	82.5	83.5	76.9	66.1	70.5	66.5
연령	20대	84.9	92.4	91.9	69.3	67.2	62.4	55.8	65.2	67.5
	30대	96.7	98.7	98.6	81.2	80.0	78.8	83.7	87.6	83.8
	40대	97.8	100.0	97.3	85.8	86.3	82.2	87.3	89.3	84.1
	50대	97.9	97.9	98.3	85.6	82.2	82.1	81.4	89.3	83.3
	60대 이상	89.9	93.8	84.5	72.5	76.6	61.5	59.7	65.9	62.9

직업	화이트칼라	96.7	98.5	98.9	80.5	85.0	78.3	82.7	86.2	87.5
	블루칼라	90.3	98.0	96.3	77.1	76.3	75.5	71.7	81.6	76.5
	자영업	96.5	96.4	77.8	80.1	74.8	44.4	83.3	84.9	66.7
	농/임/어업	100.0	100.0	96.2	83.3	92.9	72.8	50.0	100.0	82.9
	주부	93.8	96.8	89.9	86.0	84.8	77.9	63.2	70.0	63.7
	은퇴자	87.5	94.6	91.7	68.8	69.6	66.7	53.1	69.6	83.3
	무직/기타	79.6	82.1	75.0	51.0	57.1	38.9	49.0	48.2	55.6
학력	중졸 이하	85.7	88.1	66.3	70.5	75.2	43.6	50.9	53.5	40.6
	고졸	93.9	96.4	96.5	80.0	76.1	77.0	74.2	76.3	76.8
	대재 이상	95.6	98.5	97.6	80.4	82.3	78.2	79.8	87.8	83.9
결혼	기혼	95.8	97.5	94.1	81.4	82.4	75.1	77.3	81.7	77.2
여부	미혼	85.5	93.4	92.8	70.5	65.0	67.2	62.2	71.6	72.4
가구 소득	저소득	86.9	94.5	83.5	68.7	71.1	57.1	56.5	64.7	59.8
	중소득	94.1	97.9	96.8	78.4	78.6	76.4	76.7	82.9	80.4
	고소득	96.5	96.7	96.8	85.2	82.5	81.4	79.7	83.6	81.7

■ 생명보험 종목별 개인 보험가입률은 질병보장보험(69.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실손의료보험(28.5), 사망보장보험(21.9%), 연금보험(16.3%) 등의 순임.

○ 연령별로는 40대 개인 가입률이 대부분 종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연금보험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 높았음.

○ 대부분 종목에서 대학 재학 이상의 개인 가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질병보장보험과 재해(상해)보험의 경우에는 고졸 이하의 개인 가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5>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실손 의료 보험	질병 보장 보험	재해 상해 보험	간병 보험	사망 보험	저축성 보험	연금 보험	어린이 보험	변액 보험
전체		(1200)	28.5	69.4	17.4	3.4	21.9	8.4	16.3	9.4	10.1
성별	남성	(594)	28.3	65.7	15.2	3.0	20.9	8.2	14.3	8.6	9.6
	여성	(606)	28.7	73.1	19.6	3.8	22.9	8.6	18.2	10.2	10.6
연령	20대	(197)	35.5	72.6	19.8	2.0	27.4	9.1	17.8	2.5	10.2
	30대	(222)	28.4	66.2	14.9	3.6	22.5	7.7	13.1	32.4	10.4
	40대	(258)	31.0	72.9	20.2	2.7	28.7	10.5	29.1	14.0	15.1
	50대	(240)	29.6	77.9	19.2	3.8	23.8	12.1	17.9	0.0	12.9
	60대 이상	(283)	20.5	59.4	13.8	4.6	9.9	3.5	4.6	0.0	2.8
지역규모	대도시	(550)	29.3	72.0	19.1	3.3	22.4	9.6	19.3	9.8	12.4
	중·소도시	(553)	29.8	70.3	15.7	4.0	21.3	7.6	14.6	9.6	9.4
	군지역	(97)	16.5	49.5	17.5	1.0	22.7	6.2	8.2	6.2	1.0
직업	화이트칼라	(368)	32.3	72.0	13.6	2.7	29.1	12.5	20.9	12.2	12.2
	블루칼라	(294)	29.3	73.5	21.4	3.4	17.7	4.8	14.3	9.9	7.1
	농/임/어업	(27)	14.8	37.0	22.2	3.7	14.8	7.4	11.1	0.0	7.4
	자영업	(158)	29.1	67.7	17.1	6.3	18.4	13.9	17.1	6.3	11.4
	주부	(267)	24.7	70.0	17.2	3.7	21.0	6.4	15.7	10.9	11.6
	은퇴자	(12)	16.7	58.3	16.7	0.0	0.0	0.0	0.0	0.0	0.0
	학생	(38)	34.2	71.1	23.7	0.0	31.6	0.0	7.9	0.0	10.5

	무직/기타	(36)	16.7	38.9	16.7	0.0	8.3	0.0	2.8	0.0	0.0
교육 수준	중졸이하	(101)	10.9	40.6	10.9	2.0	5.0	4.0	1.0	0.0	2.0
	고졸	(482)	25.7	73.2	21.6	3.9	19.5	5.8	16.0	6.0	10.4
	대재 이상	(547)	33.8	71.7	16.3	3.5	27.8	12.4	19.4	14.8	11.7
	모름/무응답	(70)	31.4	67.1	7.1	1.4	17.1	1.4	15.7	4.3	7.1
가구 소득	저소득	(266)	13.5	53.4	11.7	4.1	7.1	1.5	4.1	1.5	1.9
	중소득	(622)	29.7	70.6	17.2	2.3	21.9	8.0	17.4	13.0	10.6
	고소득	(312)	38.8	80.8	22.8	5.1	34.6	15.1	24.4	9.0	16.0

주: 은퇴자는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가 적어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의 경우 장기손해보험이 67.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남성(72.2%), 50대(75.8%),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저소득 52.6% < 중소득 70.9% < 고소득 73.1%) 개인 가입률이 높게 나타남.

<표 6>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종목별

(단위: %, 건)

특성별		사례 수	자동차 보험	장기 손해보험	상해보험	기타	비가입
전체		(1200)	47.8	67.4	2.0	0.4	23.8
성별	남성	(594)	71.5	72.2	2.7	0.2	14.0
	여성	(606)	24.4	62.7	1.3	0.7	33.5
연령	20대	(197)	29.9	61.4	1.5	0.5	32.5
	30대	(222)	54.1	73.0	1.8	0.0	16.2
	40대	(258)	63.2	73.6	2.7	0.4	15.9
	50대	(240)	56.3	75.8	2.9	0.4	16.7
	60대 이상	(283)	33.9	54.4	1.1	0.7	37.1
지역규모	대도시	(550)	49.3	70.7	2.2	0.4	20.0
	중·소도시	(553)	46.7	66.0	2.0	0.2	26.2
	군지역	(97)	45.4	56.7	1.0	2.1	32.0
직업	화이트칼라	(368)	67.7	76.1	3.3	0.0	12.5
	블루칼라	(294)	45.6	68.0	1.7	0.7	23.5
	농/임/어업	(27)	55.6	51.9	3.7	0.0	33.3
	자영업	(158)	67.7	69.6	2.5	0.0	17.1
	주부	(267)	19.1	60.7	.4	1.1	36.3
	은퇴자	(12)	75.0	75.0	0.0	0.0	16.7
	학생	(38)	2.6	47.4	0.0	0.0	52.6
	무직/기타	(36)	19.4	44.4	2.8	0.0	44.4
교육 수준	중졸이하	(101)	15.8	32.7	0.0	1.0	59.4
	고졸	(482)	43.6	69.1	1.7	0.8	23.2
	대재이상	(547)	58.7	74.4	2.7	0.0	16.1
	모름/무응답	(70)	37.1	51.4	1.4	0.0	37.1
가구 소득	저소득	(266)	30.8	52.6	0.0	1.1	40.2
	중소득	(622)	52.7	70.9	1.8	0.2	19.6
	고소득	(312)	52.2	73.1	4.2	0.3	18.3

주: 가입상품 건수.

■ 장기손해보험 중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개인 가입률이 51.5%로 가장 높았으며, 장기간병보험의 개인 가입률은 1.0%로 가장 낮은 것으로 응답함.

○ 장기실손의료보험의 경우 60대 이상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대부분 종목에서 대도시, 화이트칼라, 대재 이상 계층의 가입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7>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개인 가입률/가입건수

(단위: %, 건)

특성별		장기 실손의료	장기 상해	장기 질병	장기 간병	장기 종합	장기 저축성	장기 어린이
전체		51.5	26.9	12.5	1.0	2.9	2.1	1.5
성별	남성	51.5	37.7	14.1	0.7	3.2	1.5	0.3
	여성	51.4	16.3	10.9	1.3	2.6	2.6	2.6
연령	20대	51.8	18.8	6.1	0.0	1.0	1.5	0.0
	30대	57.2	31.5	14.4	0.9	1.8	1.4	4.1
	40대	56.2	34.5	14.7	0.8	1.9	2.7	3.5
	50대	58.8	30.4	12.9	1.3	4.6	2.9	0.0
	60대 이상	36.4	19.1	13.1	1.8	4.6	1.8	0.0
지역 규모	대도시	53.5	29.8	13.8	0.9	3.3	2.4	1.6
	중·소도시	51.7	23.1	11.6	0.9	2.2	2.2	1.6
	군지역	39.2	32.0	10.3	2.1	5.2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58.2	38.3	11.7	0.8	3.0	1.6	1.1
	블루칼라	50.0	27.2	11.2	0.0	0.3	3.7	0.3
	농/임/어업	25.9	25.9	18.5	11.1	7.4	0.0	0.0
	자영업	51.3	29.7	13.3	0.6	10.1	0.0	1.3
	주부	51.7	13.9	13.1	1.9	1.1	2.6	4.1
	은퇴자	41.7	41.7	50.0	0.0	0.0	0.0	0.0
	학생	39.5	10.5	5.3	0.0	0.0	0.0	0.0
	무직/기타	30.6	5.6	13.9	0.0	5.6	2.8	0.0
교육 수준	중졸이하	18.8	8.9	13.9	1.0	3.0	1.0	0.0
	고졸	53.5	24.7	11.6	1.7	2.9	2.9	0.6
	대재이상	56.9	32.9	12.6	0.5	2.9	1.8	2.6
	모름/무응답	42.9	21.4	15.7	0.0	2.9	0.0	1.4

주: 가입상품 건수 기준임.

3. 향후 보험수요 및 가입 이유

■ 향후 1년 내 모든 생명보험 종목의 가입 의향을 살펴보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가입 의향이 11.2%로 가장 높았음.

○ 실손의료보험의 뒤를 이어 질병보장보험 10.6%, 간병보험 6.8%, 저축성보험 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8> 생명보험 종목 가입 여부별 가입 의향

(단위: %)

구분	현 가입률	가입 의향	
		없다	있다
실손 의료보험	28.5	88.8	11.2
질병 보장보험	69.4	89.4	10.6
재해 상해보험	17.4	95.4	4.6
간병보험	3.4	93.2	6.8
사망보험	21.9	96.8	3.2
저축성 보험	8.4	94.8	5.2
연금보험	16.3	95.3	4.8
어린이 보험	9.4	98.8	1.2
변액보험	10.1	99.3	0.8

■ 향후 1년 이내 손해보험 가입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장기손해보험은 5.0%, 상해보험은 2.2%로 나타남.

<표 9> 손해보험 종목 가입 여부별 가입 의향

(단위: %)

구분	현 가입률	가입 의향	
		없다	있다
자동차보험	47.8	56.9	43.1
장기손해보험	67.4	95.0	5.0
상해보험	2.0	97.8	2.2

■ 장기손해보험 중에서는 향후 1년 내 장기 실손의료보험과 장기상해보험 대한 가입 의향이 각각 9.4%, 8.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에서 장기 실손의료보험과 장기상해보험에 대한 가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장기간병보험의 가입의향은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았음.

<표 10>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단위: %, 건)

특성별		장기 실손의료	장기 상해	장기 질병	장기 간병	장기 종합	장기 저축성	장기 어린이
전체		9.4	8.7	6.2	6.1	1.8	2.1	0.6
연령	20대	13.2	12.2	8.1	3.0	2.0	1.5	0.0
	30대	8.6	10.4	6.3	2.7	3.6	4.1	2.7
	40대	11.6	9.3	3.9	6.6	1.9	3.9	0.0
	50대	7.1	6.3	5.4	5.4	0.8	0.8	0.4
	60대 이상	7.4	6.4	7.4	11.0	1.1	0.4	0.0

주: 가입상품 건수 기준임.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자 모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생명보험 가입자의 경우, 위험보장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는 응답이 9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노후자금 마련(11.4%), 저축수단(8.1%), 유산상속 목적(1.5 %) 순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위험보장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는 응답이 95.6%였으며, 저축수단(3.3%), 노후자금 마련(1.7%), 투자수단(0.9%)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음.

<표 11> 보험 산업별 가입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2015	2016	2015	2016
위험보장	92.9	95.8	97.7	95.6
노후자금 마련	18.5	11.4	2.3	1.7
목돈마련 저축수단	11.2	8.1	3.3	3.3
유산상속 목적	1.7	1.5	0.1	0.2
자산증식 투자수단	1.6	1.0	0.7	0.9
세제혜택 유리	0.7	0.6	0.4	0.5

4. 보험회사별 가입분포 및 회사 선택 시 고려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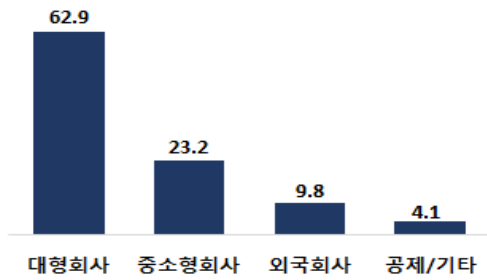
■ 최근 3년 이내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형회사 상품에 가입한 가입률²⁾이 생명보험의 경우 62.9%, 손해보험의 경우 77.0%로 조사됨.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대형회사 다음으로 중소형회사 23.2%, 외국회사 9.8%, 공제/기타 4.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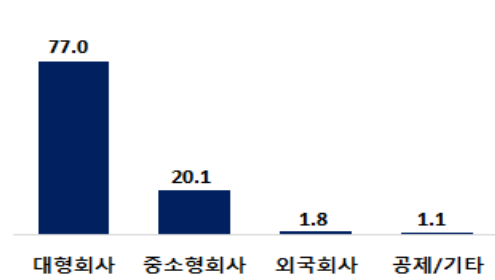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중·소형회사 20.1%, 외국회사/직판회사 1.8%, 공제/기타 1.1% 순임.

2) 3년 이내 가입자 중 각 회사군별 상품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이며, 중복 응답이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함.

<그림 1> 생명보험 그룹별 가입률
(단위: %)



<그림 2> 손해보험 그룹별 가입률
(단위: %)



주: 3년 이내 가입자 중 각 회사군별 상품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이며, 중복응답이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함.

■ 보험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상품 경쟁력인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상품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45.8%로 가장 높았고, 브랜드 신뢰성(22.8%), 가격 경쟁력(11.2%), 서비스 지원(11.2%) 순으로 조사됨.
-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에도 보험소비자들은 상품 경쟁력(40.8%)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브랜드 신뢰성(21.6%)과 가격 경쟁력(14.5%), 서비스 지원(12.3%)이 뒤를 이음.

<표 12> 향후 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단위: %)

선호 회사 고려 사항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2012	2013	2014	2015	2016	2012	2013	2014	2015	2016
상품 경쟁력	38.2	48.7	48.9	48.0	45.8	35.6	48.2	45.4	46.9	40.8
브랜드 신뢰성	26.6	18.3	17.2	15.6	22.8	27.8	17.8	18.7	16.6	21.6
가격 경쟁력	12.3	14.3	15.1	14.3	11.2	16.7	14.3	17.5	16.4	14.5
서비스 지원	13.1	10.8	10.4	11.0	11.2	10.8	12.2	10.4	12.8	12.3
개인적 관계	4.3	4.3	4.3	4.2	4.4	4.8	5.3	4.7	2.8	5.4
회사규모	2.3	1.8	2.7	2.7	2.2	1.2	0.8	1.8	1.8	2.2
설계사 전문성	1.2	0.5	0.7	1.4	1.1	1.1	0.4	0.5	1.0	1.3
경영 철학	1.1	0.4	0.3	0.6	0.3	0.5	0.1	—	0.6	1.2
과거 거래 경험	0.6	0.4	0.3	1.2	0.3	0.7	0.6	0.5	0.6	0.5
계약 편의성	0.5	0.5	0.2	1.1	0.8	0.9	0.3	0.5	0.6	0.3

주: 상품 경쟁력은 보장의 다양성 및 니즈를 반영함.

Ⅲ. 주요 이슈별 설문조사

1. 실손의료보험

■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건강하다는 응답이 74.1%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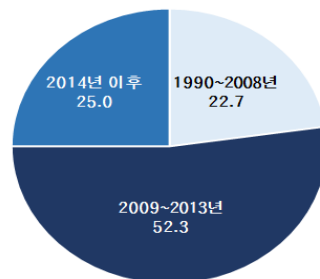
- 본인이 건강하다는 응답은 남성(79.0%), 저 연령대(20대 93.4%, 30대 91.4%) 고소득(80.4%) 계층일수록 높게 나타남.

■ 지난 1년 동안 실손의료보험의 가입³⁾ 여부, 가입 금융기관 종류, 그리고 가입 시기를 조사하였음.

- 지난 1년 동안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68.3%로, 가입 응답은 중년층(30대 77.1%, 40대 76.0%)과 안정적인 직업종사자(화이트칼라 75.3%, 고소득층 76.9%)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실손의료보험을 가장 많이 가입한 금융기관 종류로는 손해보험회사(72.1%)로, 이러한 응답은 지방(군지역 76.5%) 거주 저소득(79.8%) 계층일수록 높게 나타남.
- 실손의료보험의 가입 시기를 질문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표준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기(2009~2013년: 52.3%)에 가입하였다고 응답함.

<그림 3>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기

(n=820 / 단위: %)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갱신 주기는 3년이, 본인부담의료비(보험회사 환급률)은 9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80.7%가 갱신형으로, 갱신형의 갱신 주기에 대한 응답은 3년(38.8%), 5년(33.8%), 1년(8.2%) 순으로 응답함.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본인부담의료비 보장률에 대해서는 90%(35.7%), 80%(34.0%), 100%(15.2%) 순으로 응답함(모름: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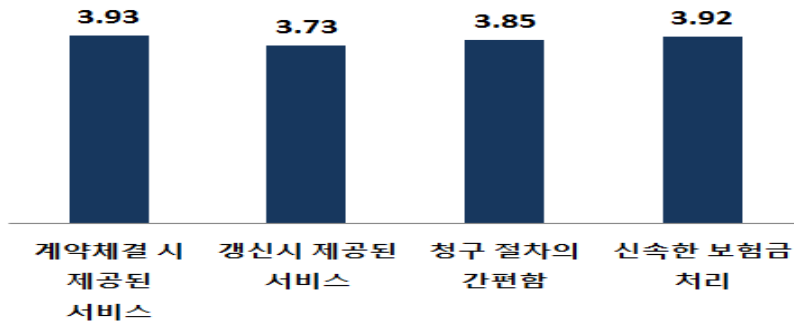
■ 실손의료보험회사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 계약 체결 시 제공된 서비스가 3.93점으로 가장 높게 나

3) 2015년 한 해 동안 실손의료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한 경우임.

타났으며, 신속한 보험금 처리(3.92점), 청구 절차의 간편함(3.85점)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 실손의료보험회사 서비스 만족도

(n=820, 152(보험금 처리) / 단위: 점, 5점 척도)



■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 중 8.4% 정도만 해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해지 이유를 살펴본 결과, ‘보험료가 부담되어서’라는 응답이 7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의료 이용이 적어 불필하다고 생각해서(18.8%), 갱신기간을 놓쳐서(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보험료가 부담되어서’라는 응답이 46.1%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건강보험으로 충분’(29.5%), ‘현재 건강하여 필요성 못 느낌’(28.2%), ‘가입 거절당해서’(7.6%), ‘가입 절차 번거로워서’(1.3%) 등의 순으로 나타남(복수응답).

■ 현재 실손의료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응답자 대상으로 향후 실손의료보험 가입 의향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 5명 중 2명 정도(40.3%)는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실손의료보험 가입 의향자는 30대(68.6%), 화이트칼라(61.9%), 대재이상(55.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 인터넷 보험 가입 채널 이용실태

■ 우리나라 보험소비자들은 여전히 대면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강해 인터넷 보험가입 채널에 대한 노출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됨.

○ 인터넷에서 보험료나 보험상품 정보를 검색해 본 경험을 물어본 결과,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0.4%로, ‘이용 경험이 있다’(19.6%)는 응답보다 4배 가까이 높게 나타남.

○ 보험정보 검색 시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 유형을 살펴본 결과, ‘검색포털 사이트’라는 응답이 6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험회사 홈페이지’(27.7%), ‘보험 관련 커뮤니티’(6.4%) 등의 순이었음.

■ 보험가격 비교 검색사이트의 활성화와 인터넷 전업 보험회사 등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 의향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가입한 적이 있다’라는 응답은 6.2%로 ‘가입한 적이 없다’(93.8%)는 응답에 비해 매우 낮았음.

○ 인터넷을 통한 보험 가입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인터넷 보험 가입 시 기존 보험의 해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기존 보험을 해지했다’는 응답은 21.6%를 차지했음.

○ 보험 가입 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 보험 가입 시 신뢰성이 걱정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2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험설계사 등과의 대면 면접이 익숙하기 때문에’(20.3%), ‘인터넷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14.1%)등의 순이었음.

■ 우리나라 보험 소비자들은 인터넷 채널을 통한 보험가입을 고려할 때 무조건 값싼 보험료보다는 보장내역 등 상품의 질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을 통한 보험 가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을 살펴본 결과, ‘보장 내역’이라는 응답이 4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험료(가격)’(35.1%), ‘상품 약관’(9.2%)등의 순임.

○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 시 희망하는 보험료 할인율을 살펴본 결과, ‘15%이상 20% 미만’이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았음.

3. 건강생활서비스 이용실태

■ 건강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물어본 결과, ‘체육, 헬스클럽 등의 신체활동 프로그램’(14.3%), ‘비만관리 프로그램’(3.5%), 금연(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참여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군지역(88.7%), 자영업자(87.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참여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금연관리 프로그램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공 기관을 질문해본 결과, ‘보건소’라는 응답이 5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정보 등을 활용한 자율적 참가’(40.7%), ‘지방자치단체’(3.7%) 등의 순임.

- 프로그램 참여 시 부담한 평균 비용은 30,741원이었음.
- 프로그램 참여 후 기대 대비 목표 달성도를 살펴본 결과, 금연 등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응답은 7.4%로 ‘달성하지 못했다’(88.9%)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남.
- 향후 금연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12.6%로 나타남.

■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공 기관을 확인해본 결과, ‘인터넷 정보 등을 활용한 자율적 참가’라는 응답이 57.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민간기관’(28.6%), ‘의료기관’(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프로그램 참여 시 부담한 평균 비용은 200,262원이었음.
- 프로그램 참여 후 기대 대비 목표 달성도를 살펴본 결과, 체중 감소 등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응답은 2.4%로 ‘달성하지 못했다’(47.6%)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남.
- 향후 비만관리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19.1%로 나타남.

■ 신체활동관리 프로그램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공 기관을 확인해본 결과, ‘민간기관’이라는 응답이 4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정보 등을 활용한 자율적 참가’(42.1%), ‘지방자치단체’(8.8%) 등의 순임.

- 프로그램 참여 시 부담한 평균 비용은 292,053원이었음.
- 프로그램 참여 후 기대 대비 목표 달성도를 살펴본 결과, 목표를 ‘달성했다’는 응답은 22.2%로 ‘달성하지 못했다’(11.7%)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 향후 신체활동관리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40.3%로 나타남.

■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공 기관을 확인해본 결과, ‘인터넷 정보 등을 활용한 자율적 참가’라는 응답이 77.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건소’(11.1%), ‘지방자치단체’(11.1%) 등의 순임.

- 프로그램 참여 후 기대 대비 목표 달성도를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 감소 등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응답은 0.0%, ‘달성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11.1%로 나타남.
- 향후 스트레스관리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25.1%로 나타남.

■ 식단관리 프로그램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공 기관을 확인해본 결과, ‘인터넷 정보 등을 활용한 자율적 참가’라는 응답이 7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7.4%), ‘의료기관’(7.4%) 등의 순임.

- 프로그램 참여 시 부담한 평균 비용은 6,556원이었음.
- 프로그램 참여 후 기대 대비 목표 달성도를 살펴본 결과, 목표를 ‘달성했다’는 응답은 0.0%,

‘달성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14.8%였음.

○ 향후 식단관리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18.5%로 나타남.

■ 향후 생활습관개선을 위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를 물어본 결과, ‘참여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0.1%로, ‘참여 하겠다’(14.8%)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여성(95.9%), 60대 이상(87.3%), 군지역(91.8%), 주부(97.0%)에서 ‘생활습관개선 지원 서비스에 참여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생활습관개선 서비스 이용 시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신체활동 관련 서비스’에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비만관리 서비스’(24.6%), ‘스트레스관리 서비스’(18.5%)의 순이었음.

○ 특히, 20대(40.1%)와 60대 이상(38.2%), 군지역(36.1%), 중졸 이하(48.5%)에서 ‘신체활동 관련 서비스’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4. 자영업자 노후준비 실태

■ 현재 운영 중인 자영업 형태로는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1인 혹은 무급가족 종사자 있는 자영업)이 71.5%로 가장 많았음.

○ 자영업 종사기간은 ‘7~15년 미만’이 34.8%로 가장 많았음.

■ 임금근로 경험이 있는 자영업자는 74.7%여서 전생애기간에 걸쳐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자영업)를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됨.

○ 자영업자의 임금근로 종사기간은 ‘7~15년 미만’이 43.2%로 가장 많았음.

○ 퇴직 후 현재 자영업을 개시한 비율(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한 비율)은 62.7%로 조사됨.

– 특히, 50대와 60대의 경우 각각 68.1%, 56.7%로, 이들 집단은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생계형 자영업의 비율로 볼 수 있음.

○ 퇴직 후 현재 자영업을 개시한 연령대는 ‘35~40세’가 27.0%로 가장 높았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아 개시연령대가 매우 다양함.

■ 자영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자영업자 맞춤형 개인연금을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한 가입의향은 35.4%로 낮았음.

○ 자영업자 맞춤형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의향이 낮은 이유로는 ‘향후에도 경제적 여유가 없

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1.2%로 가장 많았음.

■ 자영업자도 근로자처럼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사실에 대해 인지하는 비율은 15.2%로 매우 낮았음.

○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가입할 의향은 36.1%로 매우 낮았음.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가입의향이 낮은 이유로는 '향후에도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2.7%로 가장 많았음.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활성화를 위해 먼저 시행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세제 혜택이 많고 운용 수수료가 저렴해야 한다'는 응답이 44.3%로 가장 많았음.